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한 비용설정

편집부

화장실 문화의 개선은,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편리성을 제공하며 선진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개인용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공중화장실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화장실 관련 법규인 건축법규, 오수·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규등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버스티미널 화장실, 시장의 화장실등 다중 화장실은 엄격한 의미의 공중 화장실로 분류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자치단체의 화장실 문화 개선을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들의 경험을 들여보면 관리 및 감독권이 없는 다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률로는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어 안타까운 사항이며 다중화장실에 대한 방안은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자치단체의 신축 및 관리가 가능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제언하기로 한다.

일반건축물과 적용방식 달라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가 일반 건축공사비와 비교하여 공사비 단가가 높은 원인을 전문가에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화장실이 별도의 건축물로서 독립되어 있고 건축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사비

평당 단가가 상승되어 크게 신축하면 평당 단가는 낮아지지만 사용자 수를 감안한 적정 규모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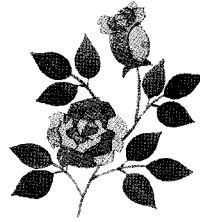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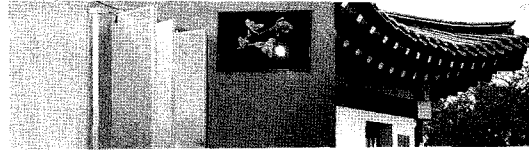
둘째, 정화시설 설치 및 상·하수도 연결을 위한 설비배관 시설과 토목 공사비가 추가된다.

셋째, 냄새제거를 위한 환풍시설, 물과 관련하여 방수성이 있는 마감재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보다 마감재료가 고가이다.

넷째,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위생기구가 추가되어 공중화장실의 신축 공사비가 일반건축비 보다 높은 편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으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 외관상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화장실 공간을 유지하며 사용자의 편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점차 사용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어 차후 개·보수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투자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정해야 한다.



내부시설에서 비용이 많이 책정되는 것은

첫째, 겨울철 동파방지 및 온수사용시설로 태양열을 이용한 솔라 패널시설, 전기보일러, 기름보일러 등을 들 수 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솔라 시설은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지만 낮은 기름보일러의 경우 유류비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화장실의 환기 문제는 습기와 악취 제거라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자연환기와 내부 미관을 감안한 천장매립형 환풍기 등 기계 환기 방식에 위생기구에 의한 탈취방식의 사용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셋째, 근본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절수형 센서감지식 설비 사용 및 절전형 조명시설도 유지·관리 비용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

넷째, 가정에서 안전사고의 25%정도가 바닥면이 미끄럽다든가 하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족한 공중화장실의 미끄럼 방지시설등 안전시설 및 응급상황을 대비한 방송설비 및 비상벨 설치도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화장실이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곳에서 생활공간으로 변하면서 옷걸이, 짐반이 등은 기본이고 유아 동반에 대한 배려로 기저귀교환대, 아기의자,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물의 낭비 예방을 위한 에티켓벨 설치, 간단히 화장을 고칠 수 있는 파우더룸등 사용자의 편의시설 설치 요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일본의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현재 한국의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비에 대한 평당 단가는 설치 장소 및 주변환경 규모에 따라 400~900만원 정도로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8년 Best10에 선정된 화장실의 공사비 평당 단가가 300~500萬円 정도로서 환율을 감안하면 위생 및 환경시설 면에서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이 우리의 실정으로 앞으로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대한 연구노력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올바른 설계방향

화장실을 개·보수 하거나 신축을 계획할 때, 설계자가 현장을 조사하여 주위환경과 자연경관에 어울리며 도시기반 시설로서 사용자가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올바른 설계를 계획해야 한다. 시공자는 정확한 품질시공을 할 때, 사용자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중화장실의 올바른 설계방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화장실의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으로 설계되고, 청결한 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어 도시미관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이상적인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사비용은 설치장소 및 주변환경에 따라 다양하여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로 공사비가 싸다 비싸다를 논하기 보다는 공중화장실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생활에 있어 얼마나 편리성을 제공하고 선진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가 있는 화장실』의 설계 포인트는 www.toilet.or.kr.